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서적,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한 방의 미사일로 신타래처럼 꼬인 한반도 정세, 풀어낼 열쇠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화성-14' 동아일보DB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지난달 초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

ICBM은 최소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아시아에서 발사해도 북아메리카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 등은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 심화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면서 국제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ICBM. 북한은 왜 IC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한의 ICBM 집착, 왜?... 내부 결속 강화, 국제사회에 존재감 과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로 줄곧 ICBM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2012년, 사거리 9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ICBM급 KN-08을 공개한데 이어 이것의 개량형인 KN-14를 2015년에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에 군사적 위력을 과시해오다가 결국 ICBM급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국제사회의 경제적, 정치적인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IC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현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할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불안정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ICBM 개발과 발사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각각 항일독립투쟁을 지휘하고, 주체사상을 체계화한 것으로 북한에서 칭송받는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눈에 띄는 업적이 없고, 과거 김정일 정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

요 실제로 군림해온 고령의 북한 고위 간부들에 비해서도 경험이 적어 1인 지배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金正은이 북한 내부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북한은 국제사회에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ICBM 발사라는 ‘초강수’로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미·중 갈등 본격화?

북한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북한과, 미국 양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일까?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우선 미국.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르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면서 북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사실상 대북 교역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권고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회의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제에는 회의적”이라면서 “원유공급 중단 등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는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경선이 바로 맞닿게 되어 안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정도의 제재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라며 독자적인 제재까지 암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과 연계된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강행할 경우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얽히고설킨 국가 간 관계… 우리나라는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인한 미중 관계의 악화는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등 그 주변국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는 그 이해 당사국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 해도 총 2만6000명(2011년 10월 기준) 수준일 정도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기 때문. 즉,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제적·군

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 과정을 조율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핵 실험, 미사일 도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각각 정리해보자.
2.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위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VII.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VII.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KBS공감토론, 2017년 7월 7일자, 긴급좌담 “북한 ‘ICBM 시험 발사’ 강행, 대북정책 어디로 가나?”

YTN, 2017년 7월 7일자, 미일VS중러, 北 ICBM 미묘한 입장차

지도법

학생들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각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장이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국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와 대중 무역에서 받은 타격 등을 각종 신문기사와 함께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국제 외교 문제가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국가 간에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줘야 하겠지요.

▶ 이현진 경기 심원중 국어 교사